

IMA 크리틱스 소개

IMA 크리틱스는 일민미술관의 시각문화 비평 연구 프로젝트다. 비평, 글쓰기, 편집 전문가를 초빙하여 비평 쓰기에 대한 원론을 되짚고 담론이 활용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익히며, 유의미한 비평의 결과물을 생산한다. 2023년에는 6인의 IMA 크리틱스 연구자 김해수, 박현, 윤태균, 이희준, 임현영, 최재윤이 활동한다.

김해수

김해수는 언어를 뜯어 호칭을 기워낸다. 생물의 작용에서 생물, 비생물의 몸과 재생을 이해하며 당김을 목격해 쓴다. 이 종합을 기의에서 해방시켜 공존을 발음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미시의 눈으로, 결집의 근력을 다시 말하는 원고들을 기획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전공에 재학하고 있다.

돌움으로 인하기

밑



도판 1. 이종환, <아이 VII(Eye VII)>, 2023, Engraving and watercolor on panel, 2 pieces of plaster, 135×119cm.

사진 출처: 아트스페이스3 웹사이트

판이한 살을 유착시키면 새 원형이 생긴다. 면적을 기꺼이 갈라 “한 짝씩” 교류하는 일.¹ 이질로 엉겨가며 이는 처음은 위안을 준다. 일례로, 접목이 있다. 영화 <애프터 양>(2021)은 이 개념으로 사랑의 종합을 말한다. 미카의 가족은 여러 인종이 속해 있는데, 이 실재를 부정 받는 사건이 생긴다. 상심하며 근원을 묻는 미카를, 양이 접을 행하는 기동으로 데려간다. 접목은 “개체가 다른 두 식물체를 조직적으로 서로 연결시켜 생장”을 “유도”하는 기법이다.² 미카는 가지가 엮인 구간에 이마를 맞댄다. 테이프는 약한 이음 같기에, 하나의 나무임을 수공하는 데에 긴 품이 소요되었다. 이 엄밀에 접목은 속한다. 서두의 다름과 팽팽하지 않은 인접으로서 능숙한 일체가 된다. 너와 나의 고유성을 호환하며 울창해가는 일. 환부를 공유하여 우거진 곳을 거닐며 미카는 차차 실감한다. 판이는 부정형이 되지 않는다. 평이를 벗겨내 넓은 살은 이중환의 회화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좋은 이웃》(아트스페이스3, 2023.5.25.—6.10.)에서 선보인 <아이 VII(Eye VII)>(2023)을 구심으로, 안착에서 용기까지 검토하려 한다³.

이중환은 “그리기(drawing), 깎아내기(shaving), 프로타주(drawing)”를 통해, 관람자를 혼연시킨다.³ <아이 VII>에서 벗겨진 곳은 주름과 닮은 세세한 켜를 지녔다. 다만, 면적의 크기를 확정하기엔 기의가 뿌연다. 깎인 속은, 이외의 온통을 가르며 연계된다. 개별의 힘은 이 느슨한 악수로서 더욱 발휘된다. 패널에서 등분을 살피자. 잘게 진동하는 하얀 선을 갈랐다. 얇은 겹을 포개어 가던 옆을 갈랐다. 곳곳에 있는 타원을 갈랐다. 완고성에 꺼서 함께 읊아 드는 위 전개는, 눈점에 부합한다. 이 퍼짐은 굳은 질료의 신생마저 긍정하도록 이끈다.

대목에 칼금을 낸 T자의 세로금과 겹눈의 상부를 잘 맞추어 서로의 형성층이 잘 결합되도록 한다.⁴

<아이 VII>의 하단에도 전환이 된 T가 있다. 위와 좌우는 세 개의 선으로 닫혔으나 밑은 열린 구성이다. 마치 도서에 낀 플래그와 닮았다. 펼침의 용이를 맡는 역할도 동일하다. 이 층에서는 깎인 속이 바탕이 되기에, 연한 채색을 위에 올렸다. 차등이 없는 미학은

1. 신이인, 『검은 머리 짐승 사전』(서울: 민음사, 2023), 22.

2. 차건성, 『접목과 삼목』(서울: 오성출판사, 2010), 10.

3. 김한나라, 《철요凸凹의 방》(라라앤, 2022.2.26.—3.26.) 전시 서문. URL: <https://lalan.art/84>.

4. 차건성, 같은 책, 38.

접목에서부터 여기를 잇는다. 이 명목하에 살이 교환하며 생길 둘레는 무궁이다. 다만, 여는 손이 있어야 읽히는 플래그와 달리, 여기의 깃—하단의 살—은 항상 찢혀있다. 심지어 “하얀 석고를 부어” 원점에 변동을 일게 하며, “평면이라 여겨졌던 막”을 떨어낸다.⁵ <아이 VII>의 접붙이기는 봄에서도 감음의 구역으로 상냥히 안내한다. 눈이 눈을 꺼안고 배반하는 순리에 익을 차례이다.

착

나방의 권력은 “호치키스로 집”혀도 능란하다.⁶ 생물을 도감에 한해 습득하려는, 인류의 안일이 이유가 되었다. 수련원에서는 날지 않음을 평평한 무력으로 여겼다. 이종환의 연작을 빌어 예습한 경사를 환기하자. 얇은 수평에서도 ‘밀접’이 있다면 돌아나가는 계속된다. 살을 맞댄 지형에서 동선—기의—은 예언될 수 없다. 깎인 패널과 본으로 떠진 나방의 몸. 상흔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이 시도는, 파악마다 앞서 반(反)하는 배교자에 오르게 한다. 접목에 있어 일부를 교환하는 일은 당연하다. 흙은 곧 집이 된다. 거둔 곳이 모여 군집을 짓는다. 그렇기에 “흙쳐내기”에도 나방은 신의 우위에서 개별의 음험을 알아냈다.⁷ 미셀 앙리는 “전적으로 자기에 의해 점령된 이 고통”을 열렬히 긍정했다.⁸ 즉, 외면에 가망을 두지 않은 채, 대면하여 붙는 일이 인상을 원활하게 한다. 속을 열고, 가르며 연계되는 열림의 유형. <아이 VIII>은 깎임의 여러 양상—몽치기, 점으로 순서 짓기, 퍼뜨리기—을 통해 이를 반영한다. <아이 VII>에서 우리는 나방의 동선과 같이 현시의 신호에 붙들린다. 층마다 올린 굵힘에도 덮이지 않는 힘이 주시하여 그렇다. 상단에는 패널의 시작으로 가늠되는 살을 수평으로 두었다. 그 위에서 굽어진 선은, 안팎의 단정을 미루도록 이끈다.

5. 박지형, 《와일드 번치(The Wild Bunch)》(디스위켄드룸, 2022.9.28.—10.9.) 전시 서문, URL: <http://thisweekendroom.com/the-wild-bunch/>.

6. 신이인, 같은 책, 18.

7. 《평면, 입체 질투》(프로젝트룸 신포, 2020.12.5.—12.14.)의 전시 서문에서 이종환은 회화에서 “지지체를 벗겨내거나 흙집” 내고, “프로타주(탁본)”를 활용한 시도를 “흙쳐내기”로 명했다.

8. 미셀 앙리, 『육화, 살의 철학』(서울: 자음과 모음), 114.

나는 한 번도 등에 진 고난을 책처럼 활짝 펼쳐 보인 일이 없습니다만

(...)

기도하는 손을 따라 날개를 모으고 고백합니다

나방⁹



도판 2. 이종환, <아이 I(Eye)>, 2022, Engraving and watercolor and graphite on panel on aluminum, plaster, 24.2×40.9×2.5cm each. 사진 출처: 디스위켄드룸 웹사이트

이종환의 회화에도 등이 있다. 중앙에 패널을 삽입하는 건 ‘아이(Eye)’ 연작의 특징이다. 일례로 <아이 I(Eye I)>(2022)은 양측에 뾰른 선을 사이에서 잇고 있다^{9, 2}. 왼편에서 전개된 문양을 연한 채색으로 변형해 옮기기도 했다. 화판의 크기로 인해 서술하지 않은 부위는 가운데에서 연장해 그렸다. 파인 반원이 있는 개별 사이에 하얀 원을 놓았다.

9. 신이인, 같은 책, 22.

뺏뺏하지 않은 정렬을 돕는 중심의 패널은, 잠재된 연속체로 환히 미끄러뜨린다. 신체에서 이해되기로도 등은 종합을 엮는 역할을 한다. 다만, 그곳에서도 단독의 개진이 있다. 이 사실이 나방과 눈의 끈끈한 도망을 돕는다. 돔과 같이 솟은, 패널의 윗면은 균등하지 않다. 양측 패널에 의해 내려진 피부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면적의 펼침은 계속 되나, '활짝'과 소원한 증표인 마모이다. 오히려 이 은닉이 살의 재생성을 신뢰하게 한다. 도감을 나방이 반격했듯이, 정립된 무엇들—평지의 이후—을 등지게 하는 위력이 아이(Eye) 연작에 있다. <아이 VII>은 상·하의 패널이 등분되어 있으나, 절단면에 이어 전개된다. 섬광과 같이 튀는 선, 교체되는 언덕, 겹과 겹. 오므리기 역시 열림의 질료임을 명심하게 된다. 여러 가능성이 실제로 행했으며, 행할 순리는 사랑을 시사한다. 그러니 사이의 친연을 믿어야 한다. 깎임의 포옹을 신속히 지켜야 한다. 단, 이 눈접에 있어 적기란 없으니 한정을 유보하고 유예하기. 곱으로.¹⁰

10. 차건성, 같은 책, 40. 책에 수록된 “(4) 접목 후 활착”을 응용하여 필자가 세 개의 규범을 세웠다.